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절실”

심 민 임실군수, 국가예산확보 국회·기재부 방문

심 민 군수가 군 최대 현안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등 군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 2차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 군수는 국회의 관련 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 군수는 지금이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난 1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사항 해결과 국가예산사업 반영 설득에 구슬땀을 흘렸다.

먼저 국회를 방문해 이용호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만나 군 최대 현안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490억원)을 비롯해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135억원) ▲국도 27호선 운종교차로 개선(150억원) ▲국도 17호선 구조물 기능 개선(45억원)의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임실 갈마 ~ 임실 오정 4차로 개량을 포함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 선정을 적극 건의했다.

임실군 최대 현안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은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미 개설되어 있는 섬진강댐 주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섬진강댐 주변지역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추

진하였고, 현재 ‘댐 주변지역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댐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다.

임실군 이를 근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정치권을 통한 국비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국회에 이어 기획재정부 방문,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과의 면담을 통해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포함 국도부 해당사업과 ▲지정환 신부 기념관 건립(50억원)과 ▲임실신치즈 휴먼치즈 제조시설 설치(21억원)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지정환 신부 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 치즈와 임실군 지역발전에 큰 헌신을 하고 지난 4월에 선종하신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의 발자취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국비 10억원이 편성된 만큼,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임실군의 5천억원 예산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려면 국가예산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 되도록 지속적인 방문과 사업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기재부 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가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시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군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심 민 군수가 군 최대 현안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등 군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받아

직원들과 대응 방안·시정발전 논의

남원시는 민선7기 1년을 점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현안업무를 발 빠르게 챙기고 있다.

이번 보고에서 이환주 시장은 지난 4월 여성가족과를 시작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주요업무에 대한 쟁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점검하며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업무보고는 오는 15일까

다. 특히, 한 단계 도약된 남원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남원의 특성에 맞는 시책발굴을 요구하며, 모든 업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혜자 중심의 시각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특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2020년도 국가예산확보사업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중앙부처 항우 인맥 및 정치권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예산 추가확보에 전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북지역 관광객 만족도 1위

지난 2016~2017년까지 국민여행실태보고서 재분석 결과

최근 ‘전북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순창군이 전북지역 시군별 관광객 만족도에서 1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은행 창립을 기념해 전북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도내 5개 시군 관광분야 실무부서장들이 참석해 관광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순창군이 관광객 만족도 부문에서 4.29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한 것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16~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를 재분석해 나온 결과로, 전북 지역 평균인 4.09점보다 0.2점 높다.

특히 향목별 만족도에서 자연경관이 4.4점을 기록하며, 섬진강과 강천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족도 1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만족도에서는 여름이 가장 높은 가을(4.23점)보다 0.47점 가량 높다.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으로 변모하는 강천산이, 가을철 단풍 만끽이나 큰 인기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평균 15~18도를 유지하는 발효소스토굴이 여름에 한기가 서릴 정도로서 여름철 무더위를 잊는 주요 관광시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 향목별 점수에서 숙박분야가 4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점수를 하회해 아쉬움이 남지만 순창 팔덕면 수변지개발사업 부지내 관광호텔을 조성중이어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수변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이면 수상레저시설들도 갖춰질 예정이어서 가을철에 집중된 관광객 비중도 점차 사계절내 평균적으로 분포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 진행

신입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민성)가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귀농귀촌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순창군 북흥 박수남씨와 김신욱 농가를 찾아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박수남씨는 현재 5만 여 평의 논에 봄배추를 심어 수확 후 콩을 연이어 심는 이모작 방식으로 연간 소득 3억여 원을 올리는 고수 농가다. 김신욱 농가는 400두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 대표 축산농가로 현대식 한우농장을 만들기 위해 40여 년 한우를 키워온 인생 경험담을 들려줬다.

현재 도시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 대다수가 각 지원센터를 통해 이론교육부터 현장교육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이주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시골 정서에 적응에 실패하며 도시로 재이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번 교육도 협의회가 실제 선배 농가들을 멘토로 삼아 책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자 마련했다.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꿈꾸는 애벌레 특별전

남원시가 생태계의 건강지표를 말해주는 다양한 애벌레를 감상하고 성장과정과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전시관이 2019년 여름방학 기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30일 동안 운영한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이번 특별전은 백두대간 생태계의 환경지표가 되는 다양한 애벌레를 주제로 한 기획으로 60종 3,000여 마리의 애벌레와 곤충 성충을 만날 수 있으며, 애벌레의 전적생물을 활용한 ‘백두대간 애벌레생태전시’, ‘애벌레성장 미션’, ‘애(愛)벌레야 놀자’ 등 전시·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많은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죽은 동·식물과 오염 물질을 분해해 백두대간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애벌레를 관찰할 수 있다.

애(愛)벌레야 놀자에서는 애벌레오감 체험, 애벌레생태놀이, 누에실뽕기 등 생태·놀이체험이 진행된다. 특별전은 모든 연령대가 입장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공 모금

남원시 인월면(면장 진명현)이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복지소식지 발간과 인월면 복지허브 활성화를 위한 연합모금을 실시한다.

방법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어, 이는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정부의 복지서비스 홍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월

맞춤형복지 소식지를 발간해 신규복지 알리사항 및 추진결과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이웃돕기성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복지허브 화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진행하고, 연합모금은 면사무소,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마을주민보호구역 4개소 선정

임실군은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에 관촌면 공덕마을을 비롯해 4곳이 선정되어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마을주민보호구역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군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해 관촌면 공덕마을 지방도 745호선, 청웅면 구고 신기마을 군도 청웅로, 강진면 갈담마을 군도 강운로, 성수면 효촌마을 지방도 721호선, 군도 산성로

를 통과하는 총 4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 4개소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사업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전북연구원의 지정 후보지, 읍면 추천, 현장조사(교통량 및 교통사고량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북도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도 및 군도의 마을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